

마스크 4장씩 무료 배부 재정자립도 19% 태백시의 기적



1 류태호 태백시장(왼쪽 두번째)이 강원 태백시 자원봉사센터를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면 마스크를 만드는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2 태백시 공무원들이 시민에게 무료 배부할 마스크를 옮기고 있다.

강원 태백시가 시민 1인당 4장씩 마스크를 배부했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17만4천386장의 마스크를 시민에게 무료로 배부했다.

태백시의 2020년 재정자립도는 19%에 불과하지만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선제 대응을 통해 마스크를 무료로 배부할 수 있었다.

당초 태백시의 마스크 비축 물량은 1만7천여장에 불과했다. 물량은 지난 1월 21~31일 군부대, 태백역, 소방서, 경찰서, 버스터미널 등 16개 다중이용시설·관계기관 배부로 사실상 동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직감한 태백시는 지난 1월 말부터 마스크 확보에 매진했다.

마스크를 추가 확보한 태백시는 2월 7일까지 총 3차에 걸쳐 마스크 6만8천여장을 복지시설, 학교, 어린이집, 병원 등에 지원했다. 이어 2월 10~14일과 17~21일 각 2만여장, 2월 24~28일 1만2천여장을 이들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무료 배부했다.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차질을 빚자 3월 1일에는 전 가구의 가구원 수와 관계기관 직원 수 만큼인 4만9천여장을 통·반장을 통해 나눠줬다. 또 캠페인을 통해 취약계층 등에게 3천여장을 제공했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마스크”라며 “시민들이 구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류 시장은 “앞으로도 가능한 많은 물량을 확보해 배부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태백시, 매주 금요일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 운영

강원 태백시는 매주 금요일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에는 시청 구내식당 휴무, 부서별 시장·상가·식당 이용하기 등이 진행된다.

현재 태백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소상공인 피해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갖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태백시는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손바닥, 손톱 밑 흐르는 물에 30초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 ✓ 대중교통 이동, 공공장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 ✓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 ✓ 감염 의심되면 병원 방문전에 1339로 문의! (발열/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